

남해 이순신순국공원에 '산뜻한 미소' 서부해당화 꽃망울

송고시간 | 2023-04-04 11:03



이순신순국공원에 핀 서부해당화
[남해군 제공. 재판매 및 DB 금지]

(남해=연합뉴스) 지성호 기자 = 경남 남해군은 이순신순국공원에 '2022그루 반려나무심기 특화 프로젝트'로 심은 서부해당화 1천800그루가 꽃을 틔우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.

이순신순국공원 내 호국광장 근처를 둘러싼 핑크빛 꽃망울은 꽃말인 '산뜻한 미소'가 절로 번지게 해 방문객의 눈길을 끈다.

수사 해당화로 불리기도 하는 이 식물은 장미과에 속하는 낙엽활엽소교목으로 키가 10m까지 자란다.

꽃이 많아 '꽃밭', 더 나아가 '꽃섬'이라 불리는 보물섬 남해군에 또 다른 꽃동산이 열린 셈이다.

서부 해당화는 지난해 '남해군 방문의 해'를 기념하고, 2050 탄소중립 선언 추진에 따라 ESG실천을 위한 '2022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'의 하나로 정자 옆 오솔길에 자리한 사이프러스 나무와

함께 식재됐다.

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"설천면 벚꽃길과 더불어 이곳 이순신순국공원의 서부해당화와 해안가의 개나리, 이락사의 동백 등 그야말로 '꽃섬 남해'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기 좋은 시절인 것 같다"며 방문을 부탁했다.

shchi@yna.co.kr

제보는 카카오톡 okjebo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3/04/04 11:03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